

소비자가 '진품' 확신할 수 있게 품질보증시스템 강화 시급하다

지자체, '짜퉁 지역명품' 방지하려면

지역 대표 특산물 굴비, 한우, 사과, 김 등은 국내 명절 선물의 대명사다. 하지만 워낙 인기가 많은 탓에 해마다 '짜퉁' 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도 끊이지 않는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농·수산물 적발 건수는 매년 잇따르고 있으며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정책도 여전하다.

이 때문에 믿고 살 수 있는 '명품' 이미지를 확보하려면 보다 강화된 품질 보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과연 내가 산 특산물이 진짜일까"라는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가.

○소비자에 '진품' 확신줘야=영광 굴비의 경우 굴비 명품화를 내걸고 추진한 계획이 영광굴비 특품사업단의 '진품인증태그(사진)'다.

영광굴비 특품사업단은 영광군 법성포 일대 굴비 생산업체 대표 41명이 영광 굴비 명성과 신뢰성을 지키자며 2009년 결성된 단체로, 2011년부터 '진품인증태그'를 발행하며 짜퉁 굴비 차단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진품인증태그는 사업단이 영광군 수협에서 위탁한 국내산 굴비에 대

해서만 태그를 붙여 중국산 등 짜퉁 굴비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로, 올해는 디자인을 새롭게 바꿨고 QR 코드를 넣는 등 업그레이드했다. 품질관리원이 회원인 생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매일 감시·지도 활동도 병행한다.

올해 초 진품인증태그 없이 특품 사업에 소속 회원임을 알 수 있는 포장용 박스를 자체 제작, 영광굴비로 위장해 유통하는 등 소비자들을 속인 업자가 적발되면서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광지역 굴비 생산·가공업체 474개(2012년 기준) 중 417개 회원사업체만 발급하던 진품인증태그를 비회원인 영광군 내 다른 생산·가공업자에게도 확대했지만 정작 품질 보증을 못하겠다는 또 다른 진품인증태그를 발급한 것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진품이긴 하지만, 사업자에게 관리 책임이 없어서부터 '진품인증태그'를 발행하며 짜퉁 굴비 차단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사실상 품질은 확신할 수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자신들도 품질을 보증하지 못하면서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영광굴비 진품인증태그 회원용



영광굴비 진품인증태그 비회원용

냐는 비판이 나온다. 청정 이미지로 유명한 장흥 무산김의 경우 완도·해남에서 들어온 김을 사용한다는 의혹이 업계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장흥군이 김 가공 공정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생산업체에게만 맡기면서 빚어지고 있는 의혹으로, 소비자 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책임 있는 품질 관리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장흥 A업체 관계자는 "일부 가공공장에서 외부에서 원초를 구입, '장흥 무산김', '장흥 진정김' 포장지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고 털어놓았다.

○줄지 않는 가짜 농·수산물=안전한 먹을 거리 생산 및 유통을 위한 각종 정책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산으로 둔갑한 수입 수산물을 가려내고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도입한 수산물 이력제의 경우 전남 지역 전체 참여 대상 2만1751개 업체의 0.7%에 불과하다. 참여 업체가 극히 적어 수산물 생산부터 가공·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기록·관리해 소비자에게 공개하겠다는 취지 자체가 무색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추석을 앞둔 지난달 26일부터 실시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집중 단속에서 11곳이 적발됐다. 지난해 전남지역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도 484개소에 이른다.

전남 지역의 경우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는 ▲2010년 488건 ▲2011년 426건 ▲2012년 484건 등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다 단속된 건수도 144건(거짓 표시 11건·미표시 133건)에 달하고 있다.



문화전당 찾은 동남아 문화장관들 베트남, 미얀마,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10개국 문화장관 등이 5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현장을 방문해 공사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들은 6일 유진용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주최하는 '제1회 한·동남아시아 문화장관 회의'에 참석하고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관람할 예정이다. /L명주기자 mjna@kwangju.co.kr

5·18 민주화는 축소 5·16 쿠데타는 미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비판 확산

뉴라이트 성향의 한국현대사학회 출신 학자들이 집필해 우편향 논란이 이는 교학사 역사 교과서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교과서 왜곡대책위원회(위원장 김원진 5·18 아카이브실립추진위원장)는 5일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축소한 교과사 간행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통과를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과서 왜곡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교과서는 5·18민주화운동과 일제하 독립운동, 광복과 건국, 4·19혁명, 군사독재정권, 민주화 운동 등에 대한 기술에서 심각한 역사왜곡행위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 "역사교과서 검정은 무엇보다도 역사적 진위 여부가 최우선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 및 동아시아 등 세계민주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5·18민주화운동 3·1 독립운동 등 우리 역사를 왜곡한 국사 교과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앞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여·야 원내 대표를 차례로 방문해 "새 교과서의 기술은 역사왜곡 일변만 아니라 역사 후퇴, 반역사적 도발"이라며 교과서 검정 취소를 위한 정치권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교과서왜곡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시민·사회단체와 공동 대응 ▲교학사 고재 판매금지처분 신청 등 범 국민 저지운동 ▲왜곡된 역사교과서 채택 무효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와 교과서 왜곡대책위원회는 광주시와 시교육청, 여야 국회의원,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로 구성했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에서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박정희 전 대통령 미화, 친일 인사 반민족 행위 축소 기술 등을 지적하며 교과서 검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윤보선 전 대통령이 5·16 쿠데타를 지지하고 육사 생도들의 지지 퍼레이드가 있었다는 등의 내용을 5·16을 미화하려는 목표를 정하고 그에 맞는 사실을 붙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사

빛의만평

- 김중두

앞으로의 진로가 더 걱정...

도지사 품질인증 남발...사후관리는 미흡

업체, 인증마크 넘쳐 의견

"남도미향, 도지사품질인증, 대만민국 신지식인, 군 신지식인... 꼬여야 할 품질인증 마크가 넘쳐나 포장지에 다 넣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인증하는 '도지사품질인증'과 '남도미향'에 선정된 보성의 한 업체는 상품 포장지에 어떤 마크를 넣어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도지사 품질인증 마크를 삭제했다. 국가와 지자체 등에서 인증하는 품질인증 제도가 너무 많아 벌어진 일이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시행된 도지사품질인증에 농수축산물 300업체 1027개 제품이 선정됐고, 남도미향은 74개 업체가 혜택을 보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제품을 선정해 놓고 사후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

광주대학교 특화 교육프로그램 & 수강생모집 안내

프로그램 안내

- 교육대상자는 만 25세 이상의 성인학습자입니다. * 만 40세 이상 성인학습자를 우대합니다.
- 특화프로그램 구성은 일반 취·창업과정, 지역사회교과과정, 학습역량증진 과정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일반취·창업과정

프로그램명	과정소개	교육기간	운영시간	모집인원
기업총무담당자양성과정	기업 총무부서 취업자 양성	2013.09.10~11.21	화,목 19:00~22:00	20명
교육상담팀 차원 취업	교육 및 상담분야 관련 협동조합 설립 절차이해와 우수 기업 탐방을 통한 사회적 기업 창업과 연계	2013.10.26~12.14	토 10:00~17:00	25명
오픈마켓 창업과정	오픈마켓 판매과정의 이해 및 실습을 통해 실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오픈마켓 창업과정운영	2013.10.28~11.13	월~목 18:00~22:00	20명
은퇴자 협동조합 과정	행복한 은퇴자 설계를 위한 창업 및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이해와 실습의 연계	2013.09.12~12.19	목 18:30~21:30	20명
경비지도사 양성과정	민간경비회사나 청원경찰 취업을 위한 경비지도사 양성과정	2013.09.02~10.22	월,화 18:00~21:00	20명

2 지역사회교과과정

프로그램명	과정소개	교육기간	운영시간	모집인원
실무형 사회복지사 양성과정	사회복지사의 기획력, 컴퓨터활용능력, 회계처리능력 등 실무능력을 높여 취업에 대한 경쟁력과 신규 사회복지사의 역량강화	2013.09.24~12.20	화,목 18:00~21:00	25명
유능한 교사·유능한 부모 양성과정	부모역량 프로그램의 실천적 접근을 통한 유아교사의 부모교육역량과 지역사회 부모교육대응자의 부모역할 역량 강화	2013.09.06~12.13	금 15:00~18:00	20명

3 학습역량증진과정

프로그램명	과정소개	교육기간	운영시간	모집인원
방과후 자기주도학습 전문지도사 양성과정	방과후 강사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연령 강화를 위한 전문지도사 기능 숙달 및 창의적 체험활동 전문가 양성	2013.09.30~12.09	월 19:00~22:00	25명
자기 주도적 단계별 다독 영어 리딩 과정(1단계)	영어교사(학원강사, 총서클링등)를 희망하는 예비취업생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영어교수방법 교육	2013.09.02~11.22	월,수 10:30~12:10	20명
방과후 오픈리더 지도자 양성과정	오픈리더 연수와 학습의 기초부터 고급반 운영 오픈리더 연수자 및 전문지도사 양성과정	2013.09.07~12.14	토 10:00~13:00	20명
방과후 관현악지도사 양성과정	관악과 관현악 중심으로 한 방과후 음악실기 교사 양성과정	2013.09.09~12.23	월 19:00~22:00	20명
단체급수 영양사 국가고시 대비과정	단체급수 영양사 국가고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대비과정 (※ 식음영양학과 전공자만 수강 가능)	2013.09.09~12.23	월 15:45~18:45	20명

*교육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학중심의 평생학습활성화 지원사업 6년연속 선정 "성인(만 25세이상)학습자"를 위한 꿈의 교육!! 취·창업 교육프로그램

특화 교육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안내

광주 대학교 성인학습지원센터는 2008년부터 평생학습 중심대학으로 선정된 이래로, 성인학습자에게 다양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광주대학교 평생학습선도대학사업단 / 성인학습지원센터

평생학습선도대학사업단이 드리는 혜택

- 광주대학교 교수진 및 현직전문가 등 최고의 강의 제공
- 특화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전액지원
- 특화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소정의 이수요건 충족시 유망자격증 취득 가능
- 성인학습자를 위한 "인학-재학-졸업" 원스톱 상담 및 정보 제공
- 학습동아리 운영 지원 (학습상담실 이용가능)
- 광주대학교 2014학년도 성인친화학과 입학시 다양한 혜택 제공

광주대학교 성인친화학과 :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 경영학과, 음악학과, 산업기술경영학부, 사회복지학부, 경찰법행정학부, 자율융복합전공학부(예술전공)

평생교육활성화지원 장학금, 평생학습지원장학금, 특별전형 장학금(만학도) 우선배정

모집내용

- 모집대상: 만 25세 이상 지역주민
- 접수기간: 2013.08.26~ 각 프로그램 개강전까지
- 접수방법: 방문 접수 : 광주대학교 백인관 7층 성인학습지원센터 이메일접수 : yun0762@kwangju.ac.kr
- 재출서류: 신청서, 신분증 사본
- 선발기준: 1순위: 만 40세이상 지역주민 2순위: 은퇴자 및 정책적 배려 대상자 3순위: 만 25세 이상 성인학습자 혹은 재직자
- 유의사항: 노동부 등 국비교육 이종지원 불가 수료기준은 각 과정별 출석률 80%이상
- 문의사항: 062) 670-2890~1

특화 교육프로그램의 기대효과

- 교육대상자의 취업 및 창업과 연계
- 성인학습자의 계속교육 및 재교육 강화
- 지역주민 성인학습자들의 평생학습 역량강화
- 대학교육 연계를 통한 입학기회 확대

광주대학교 평생학습선도대학사업단 / 성인학습지원센터 http://ace.gwangju.ac.kr